

“지광국사탑, 법천사지로 환지본처돼야”

불교 문화재 단체들 “탑 해체·보수 후 이전” 주장

현재 경복궁 내에 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오른쪽 사진)의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3월 22일 해체 보고회를 열고 3년 간의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4월 2일까지 전체 부재를 해체하게 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경복궁을 떠나 연구소로 이송해 2019년까지 보존 작업을 진행한다.

지광국사탑은 빼어난 조형미로 인해 수난을 겪은 문화재 중 하나다. 지광국사탑은 원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국보 제59호)와 함께 법천사지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 옮겨져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됐다. 이후 1990년 경복궁 경내로 오기까지 최소 9차례 이전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또한, 6.25 한국전쟁 시 폭탄 피해로 옥개석을 비롯한 상부 부재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큰 손상을 입었고, 1957년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로 복원됐다.

문제는 ‘해체·보수 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이다. 현재 지광국사탑의 소유·관리권은 국가에게 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시킬 수도 있고,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한 쌍으로 원주 법천사지로 옮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해체·보수 후 거취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문화재청 등 정부 기구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계와 강원도·원주시는 지광국사탑이 이번 해체·보수를 계기로 본래 자리로 옮겨질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원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지광국사탑의 귀향을 요구해 왔고 이를 위해 법천사지 사격 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문화재 환수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환지본처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상임대표 영담)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보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전면 해체·보수를 계기로 지광국사탑이 원래 봉안돼 있던 자리인 법천사지로 환지본처하길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탑과 일체물을 이루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가 보존돼 있는 상황인 만큼 석탑의 환지본처는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2년 일제에 의해 반출 뒤

9차례 이전 후 경복궁에 설치

6.25 전쟁엔 폭탄 피해도 입어

기단부·상륜부 등 훼손 심각해

국립문화재연구원 해체·보수 결정

불교계 “2019년 보수 완료되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옮겨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도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면서 “굳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관리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지광국사탑의 해체로 인한 손상을 우려해 법천사지로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법천사지는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매우 잘 관리하고 있는 사적이다. 해체·보수 후 본래 자리로 환수하는 것이 취지에도 맞고 문화적 파급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문화재국제연대 대표도 “이전에는 보관의 문제로 박물관 등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같은 능력을 배양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주 법천사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역점·관리하는 곳인 만큼 이제는 지광국사탑을 본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당 교구인 월정사와 지역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수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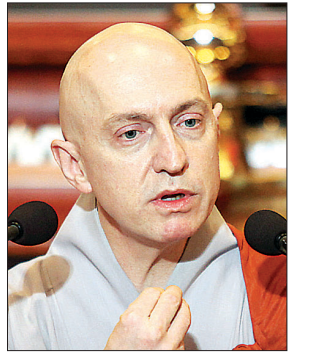
“의심서 비롯된 헬조선, 삶의 열쇠로 썰라”

현각 스님, BTN 초청법회에서 ‘헬조선과 禪’ 주제 법문

“헬조선, 새로운 말과 새로운 유행에 대한 표현이지만 본질은 의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의심(大疑心)은 한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계산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대중 앞에 선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사진)은 각박한 삶을 빚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에게 부드러운 응원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죽비의 메시지를 택했다.

현각 스님은 3월 5일 조계사청년회와 BTN불교TV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헬조선과 선(禪)’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초청법회에서 “절대자나 어느 종교도 헬조선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모든 과학자들이 자연법칙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길을 걸어왔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참나’를 돌아보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삶이 곧 화두다. 스승이 주는 화두에만 매달리면 내 옆의 화두는 보이지 않는다”며 “본성을 알아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헬조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인사난 해소? 구조적 해결책 마련하라”

불시넷 등 ‘중의회원 겸직허용 개정안’ 강력 비판

조계종 중앙종회 ‘중헌개정 및 중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중헌중법특위)’가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중헌을 개정, 중의회원의 겸직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불교계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한 이들에게 종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적 가치”라면서 “지난 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소치 못한 상황에 또다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개정하

는 시도는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될 시 종권집중 현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 일갈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신대승준비위)도 3월 1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번 겸직금지조항 개정 시도가 1994년 종단개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란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중헌중법특위는 2월 18일 열린 제14차 회의서 이유로, 3월 10일 임시종회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 개정을 발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항일운동 폭 넓혀 불교계 역할 조명”

조계종 불교사회학, ‘불교 항일운동’ 토론회

항일운동의 폭을 다양하게 파악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역동적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은 3월 1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팀장은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정리와 전망’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항일운동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을 설

명했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라면서 “이는 종교인 개인의 항일활동은 자유롭더라도 교단은 권력과 밀접한 타협에 의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2019년까지 시기별 불교계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의 ‘전통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된다

전통 차를 만드는 기법인 ‘전통 제다(傳統製茶)’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 고유 차 제조 기법인 ‘전통제다(傳統製茶)’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를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찌거나 튀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찜기, 압착, 건조 등 공정을 거쳐 마실 수 있게 가공하여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로 뒤음차, 떡차, 발효차가 그 범주에 속한다.

문화재청은 ‘전통 제다’의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제다법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각종 진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행복바라미 축전 4월 14~15일 열린다

전국 160곳서 모금 진행… 캠페인 목표 3억원 11개 도시서 문화재 개최, SNS 홍보 강화 추진

올해 4년차를 맞은 행복바라미 문화 축전이 오는 4월 14~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3월 4일 서울 경자동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일정 및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올해 행복바라미 행사는 4월 14일 전야제와 15일 개막식으로 1박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행복바라미는 △전통놀이 시연 △염색 체험 △부채춤 공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에 전시된 대 큰 호응을 얻었던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의 영

인본은 올해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완성한 전국 24개교구 신도회와 연계해 광주·수원·강릉·공주·전주 등 11개 주요도시에서 지역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각 지역특색을 살려 지역문화제마다 서로 다른 주제로 행사를 꾸린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제는 지역 교구 및 사찰신도회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날마다좋은날이 행사 소요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풀뿌리 복지를 위해 첫해부터 이어온 ‘나눔문화캠페인’은 올해 4월 16~30일 전국 160여개 모금소에서 총 3억 원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간다. 날마다좋은날은 원활한 모금을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권역별 교육과 SNS 활용을 통한 홍보에 박자를

가할 계획이다. 모금액은 12월 중 배분되며 지난해에는 1억7000여만 원을 전국 각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행복바라미 부대행사로 4월 1일부터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모바일 사진전’을 개최, 행복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작품 접수는 3월 25일까지이며, 수상작은 행복바라미 갤러리를 통해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까지 공개 전시된다.

이기홍 이사장은 “행복바라미 나눔문화캠페인은 첫 해 모금액보다 약 200% 성장해 수많은 이웃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올해에는 교구신도회와 주요사찰 신도회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SNS통신원을 활용해 범국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역문화제를 통해 불교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마다 행사 구성을 달리 해 지역특색을 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3.24(목) - 3.27(일)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賞 대 상

업체명 | RYU 1987
상품 | 전통울쥬 색잔

賞 최우수상

업체명 | 아웃웃
상품 | 천연울쥬 오방색의 공기놀이, 머리끈, 귀걸이

賞 우수상

업체명 | 계절사이로
상품 | 자연소재의 이불, 참선방석, 편백베개, 편백방석, 매트, 차 받침, 다포 외

※ 미니티켓 지참시 무료입장 (입장료 3,000원)

2016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2016 3.24(목) - 3.27(일)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 SETEC

※ 입장수익금은 참가 NGO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관람문의 |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사무국
Tel. 02)2231-2011
Web. www.bexpo.kr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ts) | 주관 | 불교신문 | 기획·운영 | 대한불교중앙협의회 | 후원 | 대한불교중앙협의회 | 후원 | 한국관광공사 | 후원 | (재)명원문화재단

신원상자원부